

# 석유화학, 국제유가 상승에 가장 민감

KEEI, 탄성치 -0.2%로 가장 높아 ... 35달러 넘으면 GDP 3.67% 하락

중동산 Dubai유 가격이 배럴당 35달러를 넘어서면 국내 석유화학산업 생산량은 6.01%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.

또 유가가 30달러 이상이면 석유화학 생산량은 2.34% 줄어들고, 28달러를 넘어서면 0.88%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.

에너지경제연구원 김태현 책임연구원이 발표한 <최근 고유가 상황이 국내경제 및 석유 수요에 미치는 영향 분석> 보고서에 따르면, 1973-75년, 1979-80년 1차, 2차 오일쇼크 때의 거시변수 변화를 분석한 결과 Dubai유 기준 국제유가가 35달러에 이르면 산업 생산량은 석유화학(-6.01%), 운수 및 보관서비스업(-4.83%), 시멘트(-2.16%) 등이 생산비 상승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금속 및 일반기계(-1.81%), 1차금속(-1.24%), 수송장비(-0.38%) 등도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.

##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산업생산량 변화율 (단위: %)

구 분	탄성치	유가 28달러	유가 30달러	유가 35달러
금속/일반기계	-0.06	▽0.26	▽0.71	▽1.81
수송장비	-0.01	▽0.06	▽0.15	▽0.38
운수/보관	-0.16	▽0.71	▽1.88	▽4.83
석유화학	-0.20	▽0.88	▽2.34	▽6.01
1차금속	-0.04	▽0.18	▽0.49	▽1.24
시멘트산업	-0.07	▽0.32	▽0.84	▽2.16
기타 에너지집약산업	-0.04	▽0.17	▽0.44	▽1.13

석유 수요는 0.3% 줄어드는데 가정·산업·공공부문의 수요가 10.4% 감소해 가장 큰 영향을 받고, 석유제품은 수요감소 폭이 등·경유에서 가장 크고 휘발유, 중유, 나프타, LPG, 수송경유 순으로 나타났다.

나프타 수요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28달러에 이르면 0.32%, 30달러에 이르면 0.86%, 35달러에 이르면 2.20% 각각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.

##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 수요 변화율 (단위: %)

구 분	유가 28달러	유가 30달러	유가 35달러
휘발유	▽0.59	▽1.55	▽3.88
수송경유	▽0.19	▽0.50	▽1.35
등경유	▽1.84	▽4.65	▽10.60
중 유	▽0.44	▽1.15	▽2.83
나프타	▽0.32	▽0.86	▽2.20
LPG	▽0.31	▽0.81	▽2.01

국내경제 전반으로는 유가가 35달러를 넘어서면 GDP가 3.67%, 소비 1.22%, 투자 2.45%, 실질임금 2.14%, 고용 3.06%, 경상수지 18.36%의 마이너스 효과가 예상됐다. 또 소비자 물가는 1.53%p, 이자율은 7.96%p 상승을 초래해 경제 전반에 걸쳐 소비와 투자부문의 위축을 불러오므로써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.

국제유가가 배럴당 30달러에서 안정되면 GDP는 -1.43%, 소비 -0.48%, 투자 -0.96%, 실질임금 -0.84%, 고용 -1.19%, 경상수지 -7.16%를 각각 나타내고 소비자물가 및 이자율은 0.60%p와 3.10%p 상승효과가 예상됐다.

또 배럴당 28달러에서는 GDP -0.54%, 소비 -0.18%, 투자 -0.36%, 실질임금 -0.31%, 고용 -0.45%, 경상수지 -2.96%의 효과가 나타나고 소비자물가 및 이자율은 0.22%p와 1.16% 상승으로 관측됐다.

에너지연구원 김태헌 책임연구원은 “유가상승에 따른 경기침체는 수입수요 감소로 이어져 경상수지의 악화를 어느 정도까지는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원유 수입의존도가 높은 국내에서는 수출제품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비싸져 수출둔화가 불가피해진다”고 우려했다. <조인경 기자>

<화학저널 2004/05/13>